



청소년자원봉사센터
Chungcheongnam-do Youth Volunteer Center

여는글

마음의 향기 좋은 말 100가지 중에서

〈좋은생각〉

〈교실에서 나누는 좋은 말〉

친절한 말은 솜보다 따듯합니다.

내 도시락 나눠먹으면 돼
선생님! 저희들 사진 책상 위에 두고 보세요
선생님! 제 마음이에요
늦잠 잤니? 다음부터 늦지 말거라
달리기를 정말 잘하네. 누굴 닮은 거니?
선생님도 너희 만날 때는 그랬단다
점수가 많이 올라네. 그동안 열심히 했구나
내가 그 수학문제 푸는 법 가르쳐 줄게
이 글 참 좋다! 친구들에게도 읽어 주겠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호! 점심시간이다
오늘은 선생님 첫사랑이야기 해 줄게
죄송합니다. 촛지는 받지 않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좋은 말〉

사랑은 이유를 묻지 않고 아낌없이 주고도 혹시 모자라지 않나 걱정하는 것입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빨리 달려왔어요
양말 벗으세요. 발 씻겨 드릴게요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님의 얼굴이 점점 닮아 가고 있어요
할머니의 주름살, 흰머리까지 사랑해요
엄마! 힘들때면 엄마 생각나요! 사랑해요!
아버지 고백하나 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오늘 밤은 같이 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한 이불을 덮는테요 ^^*

〈친구와 나누는 좋은 말〉

믿음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보고자하는 영혼의 용기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친구야. 사랑해!
너의 친구라는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너희들과 함께 걷던 그 길. 너희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누구보다 네가 나를 더 잘 알잖아
넌 영원한 내 친구야
너는 내게 '친구'라는 이름만으로도 위로가 된단다
너에겐 무슨 얘기라도 털어놓을 수 있어
너 내 친구 맞지? 그렇다면 분명히 너도 할 수 있어

2004년

겨울

.....여는글- 마음의 향기 좋은 말 100가지 중에서

04센터로 가져!

.....>>>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05프로그램 돋보기

.....>>> 내고장환경보호문화체험활동 - 철새탐조

.....>>> 농·어촌체험자원봉사활동 - 차브민 허브농장 체험

.....>>> 청소년송년잔치

.....>>> 청소년아르바이트 교육

.....>>> 청소년 진로탐색 캠프

.....>>> 청소년노인봉사활동

.....>>> 청소년자원봉사지도자(학부모) 연수

08청소년 자원봉사 상식

09청소년 자원봉사 체험수기

.....>>> '작은 자의 집'과 '애육원'의 배움터 /최재연(논산여고 2학년)

.....>>> '조그마한 봉사의 묘목에서 큰 사랑의 숲으로' /조은별(천안봉서중 3학년)

16쉬어가는 페이지

.....>>> 시험불안의 유형과 효과적인 대처방안

.....>>> 문술 잘 쓰고 못쓰는 것은 내 탓

18내 친구의 봉사활동 이야기

.....>>> 외국인 노동자 돕다 보니 /유지훈(서울 광남고 1학년)

192004년 12월의 청소년권장사이트 선정 안내

21사진으로 보는 봉사활동

232005년도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손길나눔은 충청남도의 도움으로 계간 발행됩니다.

• 발행처 :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 발행일 : 2004. 12 • 비매품 • 편집·디자인 : 신세계 커뮤니케이션즈 Tel.(042)636-8955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 있지요?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840번지 2층에 있지요!
음~ 그리고 소식지 맨 뒤를 보세요. 약도가 그려져있어요
쉽게 찾아올 수 있겠죠? ^__^



무슨 일을 하는 곳인데요?

1. 청소년봉사활동 수급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
 2. 청소년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봉사자 및 지도자 교육
 4. 청소년봉사활동 기록유지 및 관리, 확인서 발급
 5. 청소년육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 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지역사회발전 운동전개

우아~ 너무 어려운 말이당~ ㅋㅋㅋ 쉽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봉사활동을 유익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자원 봉사 활동거리를 함께 계획해보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한 봉사활동을 확인도 해주고, 우리동네, 옆동네, 아래동네, 윗동네에 혹시 봉사활동 할 곳이 있는지... 도움드릴 분들이 있는지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지요! 또 청소년 행사나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동네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모습을 홍보하기도 해요~ 음! 그리고 봉사활동이란 무엇인지 ~ 학교에서 교육도 합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자원봉사 소양교육 때 만날까요? ^^*



어떤 선생님이 계시지요?

- 이성구 소장님
- 이선열 운영요원
- 이영희 사무국장님
- 김영이 운영요원
- 오제상 운영부장님
- 한난신 운영요원
- 이영미 행정요원

Program



- 내고장환경보호문화체험활동 - 철새탐조
- 농·어촌체험자원봉사활동 - 차브민 허브농장 체험
- 청소년송년잔치
- 청소년아르바이트 교육
- 청소년 진로탐색 캠프
- 청소년노인봉사활동
- 청소년자원봉사지도자(학부모) 연수

내고장환경보호문화체험활동 - 철새탐조

- 일 시: 2004. 12. 19(일), 09:00~16:00
- 장 소: 서천군 서천철새탐조대, 한산면 신성리 갈대밭, 군산시 군산철새관찰소
- 인 원: 청소년 40명, 지도자 5명
- 내 용: 철새탐조 및 모이주기, 생태환경교육
- 준 비 물: 철새모이, 간편한 복장
- 주의사항: 붉은색이나 화려한 의상을 입지 않을것, 진한향수를 쓰지 않을 것

농·어촌체험자원봉사활동 - 차브민 허브농장 체험

- 일 시: 2004. 12. 16(목), 09:00~13:00
- 장 소: 차브민(당진군 송산면 허브농장)
- 인 원: 청소년 70명, 지도자 5명
- 내 용: 각종 허브를 통한 원예치료 체험, 허브비누 만들기
- 준 비 물: 간소한 복장, 운동화
- 주의사항: 허브를 소중히 다루는 마음. 체험활동 시 개별행동 주의

청소년송년잔치

- 일 시: 2004. 12. 18(토), 15:00~17:00
- 장 소: 건양대학교 콘서트홀
- 인 원: 도내 청소년 1,000명
- 내 용: 송년메세지, 사물놀이, 째즈댄스 등 청소년 위문공연 및 연예인 초청 공연
- 주의사항: 콘서트장 내 음식물 반입금지, 행사 중 질서유지



청소년아르바이트 교육

- 일 시: 2004. 12월 2일 ~
- 장 소: 신청학교
- 인 원: 대천여고 외 10개교
- 내 용: 청소년아르바이트의 이해, 근로계약서 작성법, 안전한 아르바이트 기초상식
- 준 비 물: 필기도구

청소년 진로탐색 캠프

- 일 시: 2004. 12월 10일(금) ~ 12일(일), 2박 3일
- 장 소: 부여성소년수련관
- 인 원: 청소년 75명(충남, 대전, 충북 통합 각 센터별 25명), 지도자 10명
- 내 용: 홀랜드적성검사 및 분석, 마인드맵 진로 미로 찾기, 자산관리게임, 진로설계
- 준 비 물: 필기구, 여벌옷 및 세면도구

청소년노인봉사활동

- 일 시: 2004. 12. 13(월), 12:00~15:00
- 장 소: 썬뜰요양원
- 인 원: 청소년 30명, 어르신 50명
- 내 용: 어르신을 위한 청소년위문공연 및 위문품 전달
- 고전무용, 발레, 가야금합주, 사물놀이 공연 및 어르신장기자랑 등

청소년자원봉사지도자(학부모) 연수

- 일 시: 2004. 12. 14(화), 11:00~16:00
- 장 소: 호텔 칠갑산 살레(청양) 4층
- 인 원: 학생봉사활동 관심있는 학부모 선착순 40명
- 내 용: 봉사활동 소양교육, 봉사활동 실습, 분임토의, 수료식 등



청소년 자원봉사 상식!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 때도 알았더라면. ^^*

친구의 이야기를 막는 10가지 걸림돌

1. 말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피한다.
2. 친구의 말을 자주 막는다.
3. 친구보다 더 많이 말한다.
4. 친구의 감정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5. 충고를 많이 한다.
6.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
7. 대화를 할 때 멀리 떨어져 앉는다.
8. 주제를 계속해서 바꾼다.
9. 친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 일에 신경을 쓰고 있다.
10. 친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예상하고 있어서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는다.

장애인이 바라는 자원봉사자

-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
-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기술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 너무 아는 척 하지 않는 사람
- 조금해 하지 않는 사람
- 다정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올바른 자세

- 장애인을 돕는다는 것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르듯이 장애인 역시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가진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 또한 서로 다릅니다. 장애인을 한데 묶어서 모두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 장애인을 만날 때에는 자연스럽게 대하고 요구 할 때만 도와줍니다.
- 장애인을 도우려 할 때에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을 도울 때에는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잘 모르는 장애인을 보았을 때 주춤하거나 유심히 보지 마세요
- 장애인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가장 이해가 없는 태도입니다.



최우수상(충청남도지사상)

‘작은 자의 집’ 과 ‘애육원’ 의 배움터

‘작은 자의 집’ 과 ‘애육원’ 은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배움을 주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깨끗한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제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주셨고, 어린 아이들의 천진함은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이란 것을 어렵듯이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 느낌 치열한 사회 경쟁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 속에 소중히 간직해 둘 것입니다.

최 재 연

논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언제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저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하는 활동이 다였으니까요.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RCY라는 봉사 단체에 들어섰을 때, 처음 그 단체에 대한 저의 지식과 정보는 하나도 없이 무지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처음으로 찾아가게 된 그곳 ‘작은 자의 집’. 텔레비전에서나 보았던 몸이 불편한 장애 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곳에 들어서기도 전에 나는 좋지 않은 냄새는 저의 발길을 옮기고 싶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을 옮겨 거실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 계신 분들이 “안녕” 하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손가락이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계속 누워 계시는 분, 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까지 제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아 힘들어 보여도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처음 무섭고 거리감 있게 느껴졌던 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는 저에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와는 달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마침 그때가 점심식사시간이라서 혼자 식사를 하시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분께 식사하시는 것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에게 당신의 양 팔이 되어 식사를 하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어디 사셨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자녀는 몇이나 있는지 등을 자연스럽게 여쭙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망울에 눈물을 보이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 왔습니다. 이렇게 마음 아프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마음의 대화를 나눈 저는 웬지 모르게 할머니의 아픔을 덜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듣는 것 이외엔 해줄 것이 없는 저에게 할머니는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장애 우들은 말을 걸으면 한결같이 미소를 짓고 웃어 주었습니다. 정말 착한 분들이었습니다. 말을 하기도 힘들고, 몸도 성치 않는

그들이 안쓰럽게 느껴졌지만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저의 선입견은 없어지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힘든 세상에 왜 태어나서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다 똑같은 사람이고, 감정이 있고, 미래를 두려워한다면 한번쯤 곱곰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잘살기 위해 자신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지금도 사회 경쟁의 속에서 하루 숨쉬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보며,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팔, 다리를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곳곳이 삶을 향해 레이스 하시는 분들을 보며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정상적인 나도 많은 괴로움을 느끼는 사회에 대해 그들은 매우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자의 집’엔 어린 아이, 장애인, 독거노인, 여러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 같아 보이지만 정말 마음은 따뜻하고 착한 사람들이란 것은 제가 직접 체험한 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갖는 선입견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고, 지금도 전 그곳에 자주 찾아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마음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준 그곳이 정말 좋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싶게 만들어 준 그곳이 저에게 언제나 자랑스럽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도 ‘작은 자의 집’은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애육원’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같이 있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살짝 살짝 밀어 줄 때 아이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위험해서 손을 꼭 붙들게 하고 너무 세게는 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연스레 멈출 수 있도록 저는 아이의 앞으로 가서 웃어주었습니다. 그 아이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표정을 바꾸어 가며 아이를 미소짓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고, 다른 봉사와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솔직히 내 앞에서 웃고 있는 그 아이보다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지는 제가 더 많은 웃음을 띄웠을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다른 아이들도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며 같이 놀자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기 있었나, 하는 잠시 재미있는 상상도하며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 다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천진난만하구나~! 어린 아이들의 순진한 모습에 반할 정도였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서로 돕고, 웃으면서 친한 그들의 모습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바로 옆에 산이 있어 그곳으로 가면 잠자리가 있다는 아이들의 말에 한번 가보았는데, 있다는 잠자리는 없고 무성한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자연이 가까이 있는 곳에 '애육원'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자리는 없지만 나뭇잎을 주며, 잠자리 대신이라고 했습니다. 잠자리 대신의 나뭇잎이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교복을 입고 있던 저는 어느새 흙이 많이 묻은 교복을 보며, 정말 어린 시절로 돌아온 것 같아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서훈하지만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오라는 아이들의 말을 들을 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꼭 다시 찾아갈 것이란 약속을 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린 아이들과 내가 한마음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 나의 봉사활동은 너무나 활력 있

고, 가슴 찬 봉사였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알 것입니다. '애육원'에 아이를 맡기거나 버리고 간 그들의 부모도 마음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끼며 아이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서 '애육원'의 아이들은 한창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클 시기인데도 그들의 사랑보다는 다른 사랑을 나누며 예쁜 미소를 오늘도 짓고 있습니다. 친구란 우정의 사랑 안에 부모의 사랑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없을지라도 그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주고, 하루 평온할 날이 없는 아이들의 침묵은 들을 수 없는 그곳엔 늘 행복이 있습니다.

'작은 자의 집'과 '애육원'은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배움을 주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깨끗한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제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주셨고, 어린 아이들의 천진함은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이란 것을 어렵듯이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 느낌 치열한 사회 경쟁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 속에 소중히 간직해 둘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태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이제 아닙니다. 내가 있기에 행복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있기에 저 또한 행복을 느낍니다. 다른 많은 이유들로 인해 소외된 이들이 더 이상은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봉사활동 시간만을 채우기 위해 시작했던 나의 봉사는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봉사란 것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대화를 즐겁게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행복을 같이 나누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많은 사람들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작지만 행복한 봉사는 지금도 계속 되고, 먼 미래에도 계속 진행형일 것입니다.



최우수상(충청남도지사상)

조그마한 봉사의 묘목에서 큰 사랑의 숲으로

이제 효로 다져진 나는 길에서 야채 파시는 할머니와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 이게 3년 동안 다져진 거구나 하는 생각에 내 자신이 기특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다. 졸업을 하면 효봉사단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속상한 느낌도 가져본다.

조 은 별

천안봉사중학교 3학년

1. 봉사라는 이름의 묘목

2002년, 나는 1학년 새내기로서 입학할 해에 처음 사귀 친구들과 함께 많이 어울려 다녔다. 어느날,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고 있었는데, 무언가 ‘썩’ 하고 우리를 가로 질러 갔다. 놀라서 있는데, 글썩 그 녀석이 길거리에 쭉그려 앉아서 야채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의 야채바구니를 치고 그냥 ‘썩’ 가 버리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놀라서 마구 소리를 지르시며 굴러간 야채들을 잡고 계셨다. 그런 할머니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같이 야채를 주워드리고 감사드렸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우리 손을 잡더니 막 고맙다는 인사를 연거푸 하셨다. 할머니의 손은 매우 차가웠다. 그때 난 생각을 했다. 할머니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말이다.

“그러나 무슨 방법으로 그런 힘없는 할머니들을 따뜻하게 해 드리지요?”

그 일이 있고 바로 며칠 후, 첫 번째로 갖는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이었다. 첫 시간이니 만큼 선생님께선 효와 봉사에 관련된 비디오와 자료들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서 한 친구가 말했다.

“우리 함께 봉사단을 하나 만들어서 효와 봉사를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비디오를 보던 친구들이 일제히 말했다. “좋아!”

그래서 생기게 된 것이 바로 효봉사단이다. 이제 단원들을 뽑아야 하는데, 우선 처음생긴 거니까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게 되었다. 물론 나도 효봉사단에 빠질 수 없는 노릇!! 더군다나 몇 칠 전, 야채 팔이 할머니의 일 이후로 나의 결심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정말이지 다행이었다.

그러나, 행동이 약간 느린 나는 행동이 아주 빠른 아이들 덕에 효봉사단에 가입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다행히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은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난 제법 효봉사단인 듯 따라 다녔다. 그래서 아이들이 날 이렇게 불렀다.

“가짜 효봉사단!”

그럴 때 마다 난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

“난 이제 곧 진짜가 될 거야! 왜 이래?”

이렇게 해서 나에게 효와 봉사란 길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었다.

2. 봉사의 나무

그 후, 효봉사단에게 첫 번째 일이 주워졌다. 그 것은 바로 홀로 외로이 살아가시는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뵙고 청소도 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는 일이었다. 나의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는 모두 살아계시는데 막상 홀로 외로이 살아가신다는 말을 들으니 코끝이 '짱' 해왔다. 기대에 잔뜩 부풀은 나와 친구들은 독거노인분 댁까지 뛰어 가버렸다. 우리 학교와 가까워서 그런지 단숨에 달려갈 수 있었다. 열심히 달려가 벨을 누른 이곳은 바로 강순례 할머니댁....

'핑둥~' 벨을 누르자 조금 후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문을 열어주신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너무 마르셨다. 그러나 할머니께서는 우리 새내기들을 보고 활짝 웃어주셨다. 그러자 내 안에 있던 암흑 같은 생각들이 모두 날아가는 듯 했다. 웃으시는 모습, 그 얼굴이 갑자기 야채 파는 할머니의 얼굴과 겹쳐보였다. '나도 참....' 야채 파는 할머니가 그리운 모양인가보다.

할머니의 반가운 웃음을 따라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땡~ 둘러 앉아 여러 가지 이야기 꽃을 피웠다. 청소도 하려고 했지만, 할머니 댁에 직접 청소하러 와 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으니 오늘은 그냥 나와 친구하다가 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강순례 할머니와 편하게, 진짜 손녀와 할머니처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다. 할머니께서는 여

조그마한 봉사의 묘목에서 큰 사랑의 숲으로

까요?”

“그럼~”

나의 엉뚱한 질문에도 웃으시면서 대답 해 주시는 할머니, 정말로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다.

송편이 대충 다 빚어지자 이제는 어머니효봉사단 분들께서 송편을 푹푹 찜 주셨다. 그 지루한 시간 동안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을 위해 우리들만의 특별 깜짝 공연을 보여드렸다. 아이들이 직접 차력쇼도 보여드리고,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불러드렸다. 우리의 노력이 독거노인 분들의 눈에 들어왔는지 열심히 호응해 주시면서 박수도 많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시간이 즐겁게 지나가는 동안 어느새 우리가 빚은 송편은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송편으로 변해져있었다.

따뜻한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으시자 아이들이 할머니와 할아버님 주위로 마구 달려들면서 여쭙보았다.

“할아버님~ 할머니~ 맛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독거노인 분들은 살인미소를 지어 주시며 아주 맛있다고 칭찬을 해 주셨다. 이렇게 독거노인 분들과 함께한 사랑의 송편 빚기 시간이 모두 지나갔다.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다 나가실 때까지 남아서 인사를 끝까지 다 하고 들어와서 뒷정리를 하였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와서 송편을 계속 빚었더니 꽤 허리가 아팠다. 그래도 웃으시는 독거노인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허리 아픈 것쯤은 아이들 장난에 불과했다. 이렇게 내 힘으로 독거노인 분들이 웃으실 수 있도록 만들다니, 난 죽어도 정말이지 여한이 없을 것 같다.

‘송편도 다같이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독거노인 분들과의 만남을 가질

나...’

추석이 지나자마자 금방 겨울방학이 다가왔다. 겨울방학이면 학교에 나올 일도 없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날도 줄어든다. 그러나, 나와 내 친구들은 방학이건 아니건 간에 외로운 겨울날, 홀로 떨고 계실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가 뵈었다.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추운데 뭣하러 왔냐고 막 걱정해 주셨다. 다행히 할머니와 할아버님들의 건강은 아주 좋으셨다. 오히려 내가 감기에 걸렸지만 말이다.

방학도 서서히 끝나갈 무렵, 우리나라의 또 다른 대 명절! 설날이 다가왔다. 우리는 떡국을 끓여드리기로 하고, 재료도 직접 준비 했다. 가기 전에 떡도 썰고 김치도 그릇에 담아놓고, 재료들을 친구들과 함께 들고 가면서 설레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 나는 이런 저런 생각을 했다.

‘오늘은 또 어떻게 해야 하지? 맛있게 드시겠지?’

복지회관에 도착하니 미리 와 계신 아주머니들께 재료를 건네 드렸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독거노인 분들의 집에 찾아가서 오늘 이렇게 효봉사단에서 떡국을 준비하였으니 잡수시러 오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다들 흔쾌히 허락해주셨다. 그리고는 다시 와서 음료수, 떡국, 김치 등 어머니들께서 주시는 것을 상에다 가지런히 차려놓고, 나도 함께 따뜻한 떡국을 대접을 해드렸다. 떡국을 깨끗이 비우시고 웃으시면서 잘 먹었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웃음이 절로 나왔고 뿌듯했다. 그리고는 우리는 모두 모여 대화를 했다. 올해는 이렇게 손녀, 손자 같은 녀석들과 떡국을 먹어서 정말 기쁘다고 하셨다. 우리도 함께 보내서 좋았다. 그리고

는 우리가 준비해온 장기자랑을 했다. 그것은 변함없는 차력쇼와 노래, 그리고 연극이었다. 열기는 뜨거웠다. 대화를 마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다 가지자, 그 빈자리에는 남은 소주와 음료수, 김치가 있었다. 그것을 모두 치우고 빈 그릇은 설거지 하시는 어머님들께 갖다 드렸다. 더한 것을 하고 싶어 우리가 설거지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상 닦으라고, 그것이 도와주는 것이라 하셔서 열심히 상을 닦고 접어서 가지런히 놓고 더러워진 복지회관을 친구들과 영뎡이를 맞대고 방을 쓸고 걸레질을 했다.

이렇게 방학 중, 새해의 첫 발걸음을 뜻 깊은 일을 했다는 봉사의 사명감이 더욱 뚜렷해졌다. 그리고, 복지회관 밖을 나왔더니, 친구들은 오늘 활동한 것을 카메라에 담아서 자신의 느낌을 비디오 카메라에 표현하며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복지회관에 가서 친구들이 다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그러나 나는 같이 찍지 않았다. 나도 친구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싶고 비디오 카메라에 그날 있었던 나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나는 효봉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무척 아쉬웠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는 그 날 집에 와서 어머니께서 상차리는 것을 열심히 도와드리고 설거지도 하고 안마도 해드렸다. 내가 그곳에 가서 한 것 만큼 집에서 열심히 효를 하고 싶었다. 웬일이냐고 하시는 말씀에 '내가 이렇게 자주 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부끄러웠다.

이 모든 활동들 덕에 학교에서 작성하라는 효경 실천록을 아주 손쉽게 쓸 수 있었다. 제법 나도 1년동안 효봉사단인 친구들을 따라 다니면서 할머

니께, 할아버지께, 선생님께, 그리고 친구들에게 배운 것이 많아서 실천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효경실천록을 자기가 실천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는 고문이 나에게만 즐거움이 되었다.

(중략)

4. 기쁨의 숲

몇일 전 나는 1학년 때 야채 파시던 할머니를 보았다. 그 소년이 할머니를 치고 간 후 그곳에서 할머니를 볼 수 없었다. 다른 곳에서 야채를 파셨던 모양이다. 엄마의 심부름으로 그곳에서 많은 야채들을 사고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많이 파시라고 하면서 손을 붙잡아 드렸다. 예전보다 한결 따뜻한 손이었다. 3년전 그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 드리지 못한 것은 아직 효에 대한 미숙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효로 다져진 나는 길에서 야채 파시는 할머니와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 이제 3년 동안 다져진 거구나 하는 생각에 내 자신이 기특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다. 졸업을 하면 효봉사단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속상한 느낌도 가져본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봉사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남은 학기 동안 그 배움의 그릇을 조금이나마 더욱 채우려고 한다. 난 나의 이런 조그마한 봉사의 묘목이 많은 후배와 친구들에서 나아가 모든 이가 함께하는 큰 기쁨의 숲이 될 것을 믿는다.

시험불안의 유형과 효과적인 대처방안



〈불안초조형〉

시험을 잘 못보면 어떻게 하나하는 예기불안으로 인해 불안, 초조가 심해지고 몸 여기저기가 아프게 된다. 가족들이 지나치게 기대를 한다거나, 시험에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었거나, 성격이 내향적이고 소심한 경우에 흔하게 나타난다.

»» 대처방법 <<

- 학부모 : 가급적 비난을 삼가고 학생이 다소 짜증을 내더라도 이해해 주도록 한다.
- 학생 : 목욕,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취미생활을 찾아 긴장을 풀도록 한다.

〈탈진형〉

잠자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잠 안오는 약(각성제)이나 과도한 카페인 음료(커피 등)를 취하여 수면 리듬이 깨어져서 만성 피로가 지속되는 경우이다.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몰아치기식 공부를 하여 극도로 탈진되어 무기력증, 불면증으로 고생하게 된다.

»» 대처방법 <<

- 학부모 : 무리한 계획보다는 단기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한다.
- 학생 : 안정을 취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한다. 수면리듬을 되찾도록 한다. 잠 안오는 약(각성제), 카페인음료(커피, 홍차, 녹차, 콜라 등)를 삼간다.

〈공허형〉

시험준비로 인해 그간 즐겨오던 취미나 친구관계 등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허탈감에 빠져서 이에 대한 반발로 주체성 혼란, 약물남용, 등교거부, 가출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 대처방법 <<

- 학부모 : 학생의 능력에 맞는 구체적인 진로와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적이 오르면 그에 따른 상을 주어 격려한다.
- 친지들 : 대화를 통해 삶의 욕구를 고취시키고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학생 : 매일 10분씩 3번이라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 공부하도록 한다.

〈절망형〉

계속된 성적부진으로 인해 열등감에 싸여 의기소침해지며, 자포자기에 빠져 버리는 유형이다. 부모의 기대가 높아 가정 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 대처방법 <<

- 학부모 : 자녀의 단점을 비난하기보다 장점을 찾아 칭찬 해 준다. 농담, 유모어, 만화를 통해 웃음을 되찾게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집안의 분위기를 명랑하게 유지한다.
- 학생 : 아주 쉬운 과제부터 시작하여 자신감을 되찾는다.

[서울시 학교보건원 신경정신과]

논술 잘 쓰고 못쓰는 것은 내 탓



고급 논술을 위한 서론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이지만 논술에서는 조상 탓은 아무 소용이 없다. 철저하게 내 탓이다. 긴 글에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색깔이 드러난다. 어설픈 논술지도의 힘을 입어 점수를 올리려는 의타심보다는 「마이 웨이」를 외치는 것이 백 번 낫다.

논술의 가장 큰 장애는 논술의 틀에 맞추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다. 글을 꽤 쓰는 사람도 논술이라고 하면 갑자기 긴장하여 생각이 굳어지고 손이 멈춰진다. 논술의 압박감이 그나마 작문도 못하게 얹어매는 것이다.

서두는 이렇게, 구성과 개요는 저렇게-과외선생마다 주문하는 요령지도에 주눅이 들어 감점요인만 만드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도를 이루려면 판에 박힌 틀을 허물어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는 불교의 아포리추처럼 고급 논술의 봉우리를 점령할 때는 차라리 어설픈 논술의 방법론보다 한 편의 글을 잘 쓴다는 단단한 각오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나만의 포인트

모든 글쓰기가 그렇듯 논술도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쓸까?』-소위 「주제」를 잘 잡으면 그만이다. 그것도 가급적 간단하게 나만의 생각을 확정하자. 논제를 꼼꼼히 읽어 몇 차례 생각해본 다음 생각이 모아지면 그것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논제에 대하여 다소 무시하는 가벼운 자세가 좋다.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중얼거리며 정리해보자. 『뭐, 이거 별거 아니구면. 민중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다는 이야기를 쓰면 되겠네.』하는 식으로. 출제자가 요구하는 포인트만 맞으면 만점이다. 그런 간단한 논술을 괜히 논술답게(?) 쓰려다 초점을 잃고 우왕좌왕 감점만 당하고 있다.

도입부분은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내가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 채점자가 읽을 준비가 필요한 만큼의 정보, 소위 「서론」을 쓰면 된다. 그리고 본론은 가급적 범위를 좁힌다. 그 대신 아는 한도 내에서 다각도로 생각하고 심화 발전시킨다.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비록 내가 알고 있는 몇 안되는 쓸만한 지식이라도 과감히 버린다. 그리고 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포괄적으로 결론을 맺는다. 억지로 해결책을 제시한다든지, 무조건 「조화로운 견지에서 취사선택하여 해결하자」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결말도 필요없다.

거품을 빼자

우리는 논술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답을 써야 한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논술은 늘지 않고 시험은 다가오니 예상문제를 찍고 모범답안을 외우는 경우가 많다. 결국 예상문제가 안 나오면 망하고 예상문제가 나와 천편일률적인 답안을 써도 망하기는 마찬가지다.

논술을 잘 쓰는 것도 「나」고 못쓰는 것도 「나」다. 이렇게 쓰면 반드시 좋은 점수를 받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과외 선생도 무시하고 논술자습서의 지침도 잊어버리자. 나의 밖에서 나의 글을 끌고 나갈 힘은 어디에도 없다.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쓰는 수밖에 없다. 요령을 다 익힌 후 과감히 버리는 것그것이 바로 요령인 것이다.

(박대호/박학천 수능·논술연구소장)

외국인 노동자 돕다 보니...



“봉사활동하면 거창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일이라도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서울 광남고 1학년 유지훈군(16·사진)은 지난해 4월부터 일요일마다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돕고 있다.

역시 무보수로 봉사하는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혈압을 재주거나 약을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짐을 옮기거나 청소를 하는 등 굵은일도 마다않고 있다.

“뉴스에서만 보던 외국인 노동자를 처음 보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둡고 그늘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직접 만나보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광진구 광장동 유군의 집에서 동작구 신대방동의 봉사센터까지는 1시간가량 걸린다. 일요일 오후를 꼬박 봉사활동에 할애하는 셈. 이를 위해 일요일에는 학원도 수강하지 않는다.

공부하기에 시간이 모자라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녁 때 집에 와서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환자가 많을 때면 잠깐 앓을 틈도 없이 바쁘지만 형 누나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워 일요일이 기다려진다고 유군은 말했다.

1년에 2, 3번은 특별봉사를 하는데 외국인 마라톤대회에서 진행요원을 맡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 강제 추방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커피와 차를 타주기도 했다.

“한겨울에 비까지 오는 집회 현장에 하루 종일 서 있으니 추위에 머리가 멍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서툰 한국말로 연신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유군은 중학교 때는 지하철역에서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대충대충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 때로는 봉사활동 실적 시간을 늘려 적어 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등 많은 것이 달라졌다.

유군은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사선생님과 형 누나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대학생이 되면 해외봉사활동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4년 12월의 청소년권장사이트 선정 안내

정보통신위원회는 '2004년 12월의 청소년권장사이트' 30개를 엄선하여 발표했다. '2004년 12월의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선정된 사이트는 '민물고기환경생태사이버체험관' (www.fish.go.kr), '(사)청소년 금융 교육 협의회' (www.fq.or.kr), '제주 사이버삼다관' (www.jejusamda.com) 등 30개 사이트이다. 특히, 이번 12월의 청소년권장사이트 선정은 일반전문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이외에 시범적으로 청소년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반영하고, 청소년 스스로 건전한 사이트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경북도청에서 운영하는 '민물고기환경생태사이버체험관' (www.fish.go.kr)은 국내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중심으로 환경생태 정보를 소개하는 사이트로, 환경관, 체험관, 어린이관 등 가상체험관을 통해 시각적인 재미와 함께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사)청소년 금융 교육 협의회' (www.fq.or.kr)는 청소년들에게 금융 교육 및 개인 신용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건전한 경제생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로, 만화, 신문기사 등을 소재로 한 경제상식 제공과 학교방문교육에 대한 신청도 받고 있다.



제주도청에서 운영하는 '제주사이버삼다관' (www.jejusamda.com)은 돌, 바람, 여자가 많다는 '삼다도' 제주를 소개하는 사이트로, 돌문화관, 바

12월 청소년권장사이트

강박항의 책 읽어주는 선생님
<http://www.mymeil.pe.kr/>

놀이터
<http://noriteo.lil.to>

도담공부방
<http://dodam2.new21.org>

독어교육홈페이지
<http://daf.pe.kr/>

동물과함께하는따뜻한마음아름품
<http://www.withanimal.net/>

마한백제문화유산
<http://www.godoiksan.go.kr>

모뎀일기
<http://modumilgi.com>

민물고기 환경.생태 사이버체험관
<http://www.fish.go.kr>

송알송알
<http://www.koreakidnews.org/>

신화이야기
<http://www.julyhood.co.kr/>

알라딘
<http://www.i-aladin.com>

어린이문화예술학교
<http://www.kccac.org>

오즈클럽
<http://www.ozclub.co.kr>



람관, 여성관 등 가상현실관을 통해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고유한 언어, 속담, 전설을 흥미롭고 유익하게 구성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마한문화, 백제문화, 미륵사지, 익산문화 등의 메뉴를 통해 알찬 전문 자료를 소개한 '마한백제문화유산' (www.gdoiksan.go.kr), 국어, 문학 및 언어영역 등 학습자료에서 진학, 입시 정보까지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JR이만들어가는국어나라' (www.jongryul.com), 딱딱하기 쉬운 지리교과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게 해주는 '지리교사' (www.geotutor.pe.kr) 등 총 30개의 사이트가 2004년 12월의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선정되었다. 한편, 청소년심사위원으로는 평소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중에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와 한국IT소년단에서 각각 추천받은 김민규군(단대부고1년)과 손원철군(대구능인고1년)이 활동하였다. 김민규군은 심사 후 "상당히 좋은 사이트가 많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면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사이트로 "성상담사이트, 흡연의 유해성을 알려주는 사이트, 자아 정체성 정립에 도움되는 사이트 등"을 꼽았다. 손원철군은 이번 심사에 있어 주어진 평가기준에 맞추어 구체적인 판단예시를 들어 심사하는 섬세함을 보여 주었다. 또, "개인적으로 색다른 경험을 하였으며, 좋은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두 학생은 청소년권장사이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번 청소년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심사효과를 반영하여 내년에는 청소년심사위원의 참여를 정식으로 도입,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권장사이트는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30개씩 선정되고 있으며, 누구나 '아이틴넷' (<http://www.iteernet.or.kr>)에 접속하여 500여 개의 청소년권장사이트를 열람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청소년종합상담실
<http://www.counteen.or.kr>

인도 바로 보기
<http://maincc.hufs.ac.kr/~indo>

정지용사이버박물관
<http://www.jiyong.or.kr/>

제주 사이버 삼다관
<http://www.jejusamda.com/>

지리교사
<http://www.geotutor.pe.kr>

철만쌤의 음악교실
<http://www.cmkim.pe.kr/>

청소년봉사활동정보센터
<http://www.dgbongsa.com>

탁틴넷
<http://www.tacteen.net>

텐텐짱
<http://www.tentenzang.com>

하이경제
<http://hi.korcham.net/>

한국공룡연구센터
<http://www.dinorc.co.kr/>

한국어린이안전재단
<http://www.childsafe.or.kr/>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http://www.fq.or.kr>

ARTplus 미술교실
<http://www.artplus.or.kr>

JR이 만들어가는 국어나라
<http://www.jongryul.com>

scienceALL
<http://www.science.or.kr/index.jsp>

XSMOKE
<http://www.xsmoke.or.kr/>



사진으로 보는 봉사활동



청소년노인봉사활동



오늘은 쉬는 날..휴일도 잊고 봉사활동하러 나온 조차원 고등학교 학생들..참 기특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모두모두 김차~~~



박동진 소리 전수관에서.. 조차원 고등학교 한 학생이 직접 나와서 배운 것을 따라해 본다.. 근데,볼 때는 쉬었는데 왜이렇게 안 되는거지?



할아버지도 한 번.. 얼썬!조오타~~~



온천에서 목욕을 마치고 돌아온 노인들과 학생들.. 너무 열심히 씻었는지 배가 고프겠?^^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청소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청소년과 함께하는 어르신 공경잔치
+교사연수



2005년도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구분	사 업 명	내 용	담 당 자	비 고	
전국 공통 사업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터전인증제	활동터전 발굴, 등록, 인증서수여, 소양교육 등	김영이 팀장	연중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운영	봉사카드 발급, 마일리지 전산관리, 인센티브 등	김영이 팀장	연중	
	시·군·구센터 및 지역네트워크구성 운영	시·군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지도자 전문성강화 교육	오제상 운영부장	연중	
	청소년자원봉사자 해외봉사단 운영	해외문화봉사자 선발 및 한국문화홍보 봉사활동	한난신 팀장	1회성	
	자원봉사활동 제작홍보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언론 홍보	오제상 운영부장	1회성	
목적 사업	청소년자원봉사 박람회	부문별 60여명 시상 및 전시	오제상 운영부장	연중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지원	10개 동아리활동 지원	이선열 팀장	연중	
	청소년아르바이트 운영 활성화	아르바이트 소양교육 및 현장체험	한난신 팀장	연중	
	청소년자원봉사 전문성강화	소양교육	청소년자원봉사 기초교육(도내 중·고등학교)	김영이 팀장	연중
		지도자연수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담당교사 및 관심있는 교사 60시간 교사연수 (방학중)	한난신 팀장	1회성 (60시간 교사연수)
운영위원회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및 활동연계	이영희 사무장	2회	
센터 특성화 사업	청소년문화체험환경보호봉사활동	문화체험/지역축제도우미/환경정화/시설견학 등	김영이 팀장	연중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봉사활동	장애우와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 및 체험학습	이선열 팀장	연중	
	농어촌 체험 자원봉사활동	작목별 농가 일손돕기/팜스테이/자연재해복구돕기	이선열 팀장	연중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봉사활동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불우이웃돕기	한난신 팀장	연중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시범학교 운영	시범학교 운영(2개교)	이선열 팀장	연중	
	청소년자원봉사 지역교류활동	타 국가·시·도와 지역교류	오제상 운영부장	캠프	
	사업보고서 제작	2005년도 사업보고서 제작	이선열 팀장	1회성	

※ 각 사업별 내용과 담당자를 참고하시어 희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Chungcheongnam-do Youth Volunteer Center

<http://www.bongsai.or.kr>

<http://www.youth1ba.or.kr>

☎ (041) 736-9001(4) / (041) 733-1980

☎ 남부권(대전) 8405-1320-0107